

서울시교육청, ‘심리·학력·가정’ 복합위기 학생 528명 지원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통해 지원받은 학생 전년비 4.7배 늘어 학교 밖 지역기관 연계 등으로 도움

학교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학생의 복합적인 문제를 교육지원청과 지역기관이 함께 지원하는 체계가 본격화하고 있다. 심리·정서부터 가정환경, 기초학력까지 여러 어려움이 겹친 학생을 학교 밖 전문 기관과 연결하는 방식이다.

1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3~6월 11개 교육지원청의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받은 학생은 528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111명)과 비교해 4.7배로 늘었다. 지난해 연간 지원 학생 334명도 이미 넘어섰다.

학생맞춤통합지원원은 심리·정서, 기초학력, 경제적 어려움 등 여러 문제를 동시에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학교와 교육지원청, 지역기관이 연계해 지원하는 제



서울시교육청 용산 청사.

도다. 올해 3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전면 시행됐다.

지원 수요는 심리·정서 영역에 집중됐다. 전체 지원 영역 가운데 심리·정서가 41%로 가장 많았고 가정 문제·아동학대·학교폭력 등 기타 영역이 28%, 기초학력

10%, 학업중단 8%, 경제지원 7% 순이었다. 학생 수로는 심리·정서 380명, 기타 256명, 기초학력 93명, 학업중단 72명, 경제지원 68명 등이다. 한 학생이 두 가지 이상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중복 집계됐다.

지원 과정에서는 학교 밖 기관과의 연계가 가장 활발했다. 전체 연계 지원 가운데 자치구 주민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가족센터 등 지역기관 연계가 45%를 차지했다. 교육복지센터가 25%, Wee센터 14%, 교육지원청 내 다른 부서와의 협력이 12%, 학습진단 성장센터가 4%였다.

학교가 교육지원청에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는 전화 이용이 많았다. 상반기 접수 912건 가운데 유선 접수가 587건으로 64.4%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지역별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로 자동 연결되는 ‘학맞통 SEN콜’ 연결은 292건이었다.

실제 지원 대상에는 여러 문제가 동시에 나타난 학생들이 포함됐다. 잦은 결석과 자해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한 학생은 교육지원청과 지역 의료기관의 연계로 주 1회 전문 진료와 심리상담을 지원받았다. 이후 등교 의지가 높아지면서 학업중단숙려제 상담도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했다.

또 한부모 가정의 돌봄 공백과 ADHD, 공격적 행동, 잦은 교실 이탈 등을 함께 겪던 학생에게는 Wee센터와 교육복지센터, 경찰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7개 기관이 참여해 정서행동치료와 보호자 양육코칭 등을 지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지원 학생이 크게 늘어난 데 대해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과 교육지원청 중심의 윈스톱 지원체계 구축, SEN콜 도입 등의 영향으로 보고 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윈스톱 지원 체계로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빠르게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더욱 촘촘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단 한 명의 학생도 배움과 성장에서 소외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수험생 91% “수시지원 대학, 아직 결정 못해”

내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3주 앞뒤 상황·적정·안정 배분이 최대 고민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3주 앞두고 수험생 대부분이 지원 대학 6곳을 아직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절반 이상은 6장의 절반인 3개 이하만 정한 상태였고, 지원 조합을 짜는 과정에서 ‘상향·적정·안정’을 어떻게 나눌지가 가장 큰 고민으로 꼽혔다.

19일 진학사가 2027학년도 수시 지원 예정 수험생 74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시 원서 6장을 모두 결정했다는 응답은 9%에 그쳤다. 나머지 91%는 아직 지원 대학을 모두 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결정한 원서 수를 보면 ‘2~3개’가 40.2%로 가장 많았다. ‘4~5개’는 37.6%, ‘아직 하나도 결정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10.1%, ‘1개만 결정했다’는 3.1%였다. 3개 이하만 결정했거나 아직 한 곳도 정하지 못한 수험생을 합치면 전체의 53.4%다.

아직 6개 원서를 모두 결정하지 못한



지난 7월 23~2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대학별 입학상담을 받고 있다. /메트로신문 DB

676명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 ‘상향·적정·안정 지원을 어떻게 구성할지 고민돼서’라는 응답이 38.5%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내 성적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을 판단하기 어려워’가 25.7%, ‘9월 모의평가를 치른 뒤 결정하려고’가 25.6%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학교나 학원 상담 이후 최종 결정하겠다는 응답은 7.4%, 학생부가 아직 나오지 않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응답은 2.1%였다.

우연철 진학사입시전략연구소장은 “지원 후보가 많을수록 오히려 마지막 6장을

결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이제는 지원 대학을 계속 추가하기보다 후보군을 상향·적정·안정으로 구분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안정 지원이라고 해서 합격 가능성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합격했을 때 진학할 의향이 있는 대학인지도 따져봐야 한다”며 “상향 지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경우에도 합격 가능성을 확보할 카드가 있는지 함께 점검하면 6장 각각의 역할을 보다 명확하게 정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현진 기자

고양시, 공공기관 기능·조직·사업 재검토

단순 조직개편·인력조정 넘어 공공기관 운영 효율성·실행력 강화

고양시가 민선 9기 시정 비전을 현장에서 실행하기 위해 산하 공공기관의 기능과 조직, 사업 전반을 재검점하는 혁신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혁신은 고양대전환준비위원회가 민선 9기 주요 정책과제로 제안한 ‘산하 공공기관 혁신’을 구체화하는 후속 조치다. 시는 6개 산하 공공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비롯해 조직·인력 운영과 주요 사업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기관별 개선 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단순한 조직 개편이나 인력 조정에 머무르지 않고 각 기관의 설립 목적과 정책 기능이 현재 행정환경과 시민 수요에 부합하는지를 원점에서 재진단한다는 방침이다. 필요성이 낮아진 기능은 조정하고 정책적 중요성이 커진 분야에는 인력과 역량을 집중해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실행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고양시 공공기관 혁신방안 보고회’ 진행 사진

시는 민선 9기 주요 과제인 교통 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 민생 안정을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정책 집행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소통혁신·안전혁신·경영혁신을 3대 축으로 정하고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세부 혁신 과제를 발굴해 추진한다.

시는 지난 12일 첫 보고회를 시작으로 19일까지 6개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혁신방안 추진 보고회를 진행했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경기도, 지방정부 가축방역 ‘최우수’ 선정

AI 예방, ASF 선제 방역 추진 중장기 가축방역 종합대책 등 성과

경기도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6년 지방정부 가축방역 우수사례 특별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정부의 가축방역 실적을 평가해 우수사례를 발굴·포상하는 사업을 시행해 왔다. 이번 평가는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가축방역 시책의 방역 효과,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협

업 등 창의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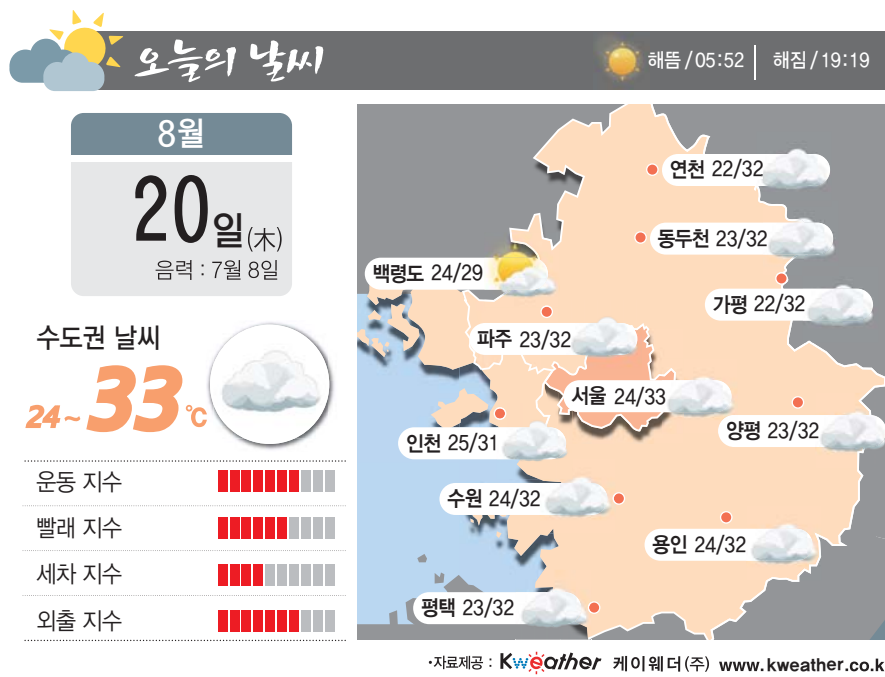
경기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한 오리 조기출하 및 사육제한, 농가에 철새 이동 유도, 구제역 예방 집중 관리 강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전담조직 운영 등 선제적 방역정책을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경기도형 중장기 가축방역 종합대책 수립과 재난형 가축전염병 4중 진단체계 구축, 현장 의견의 중앙정부 제도 개선 연계

등이 주요 성과로 평가됐다.

이은경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최우수기관 선정은 도와 시군, 동물위생시험소를 비롯한 현장 방역 관계자와 축산농가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경기도의 가축방역이 곧 국가방역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앞으로도 선제적 예방과 신속한 대응으로 가축전염병 발생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오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기관 표창을 받고, 28일 전국 시도 구제역·립피스킨윅크숍에서 경기도 우수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김용택 기자 mk4303@



메트로 한줄뉴스



▲“이란, 미국 전쟁 확대 시 유럽 내 미군 자산 타격도 고려” /사진 뉴시스
▲트럼프, 캐나다 ‘50% 관세’ 3일 보류…카니 “주요 과제 여전”

▲中 7월 청년실업률 17.9%로 급등…11개월 만에 최고치
▲中샤오미, 메모리 가격 상승에 2분기 조정 순이익 43% ↓

▲日 여야 의원단 내주 방중…다카이치 ‘대만 발인’ 후 처음
▲日 지바현 기록적 폭우에 거리 방치 차량만 2천 700대 확인